2024년 8월 30일

미국주식 시황 Analyst 안소은
se.ahn@kbfg.com

US Market Pulse

달러제너럴 실적으로 재확인된 저소득층 소비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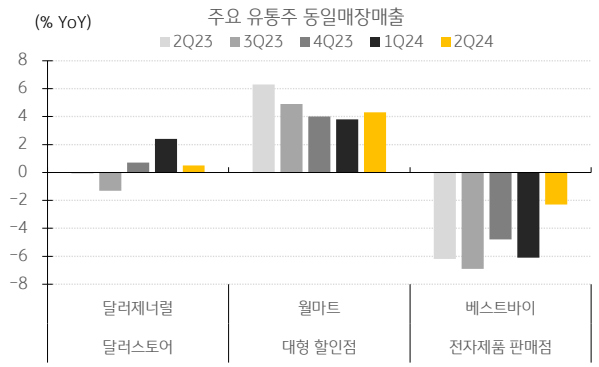
엔비디아 하락에도 경기민감주 중심으로 선방

- 2분기 GDP 개인소비지출 중심으로 상향 조정: 엔비디아 실적 실망에도 주요 지수의 하락폭은 제한. 나스닥 지수는 0.2% 하락에 그쳤고, 다우 지수는 0.6% 상승하며 신고점 경신. 에너지, 금융, 산업 등 경기민감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선방. 에너지 업종의 경우 리비아 산유량 감소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영향을 반영. 또한 경제지표 내용도 경기민감주에 우호적으로 작용.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시장 예상을 밑돌았고,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2.8%에서 3.0%로 상향 조정. 특히 GDP 항목 중 개인소비지출 성장률이 2.3%에서 2.9%로 높아짐
- 달러스토어 실적으로 저소득층 소비 약화 재확인: GDP 수정치가 소비 경기에 대한 우려를 낮췄지만, 유통주 실적을 보면 저소득층의 소비 약화는 분명. 같은 필수소비유통 산업그룹에 포함돼 있지만 주요 고객층이 다른 대형 할인점 (월마트, 타겟)과 달러 스토어 (달러제너럴, 달러트리). 중산층을 중심으로 비교적 넓은 소득계층을 고객으로 아우르는 대형 할인점은 전체 소비 경기가 악화되지 않는 이상, 특정 소득계층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타격이 크지 않음. 월마트와 타겟 실적이 양호했던 이유. 반면 저소득층을 집중 공략하는 달러 스토어는 지금과 같은 소비 환경에서 버텨내기 어려움. 달러제너럴 실적이 저가 전략에도 부진했던 배경

저소득층 지출 압박의 영향을 피하지 못한 달러제너럴, AI 기기 교체 수요가 조금씩 나타나는 베스트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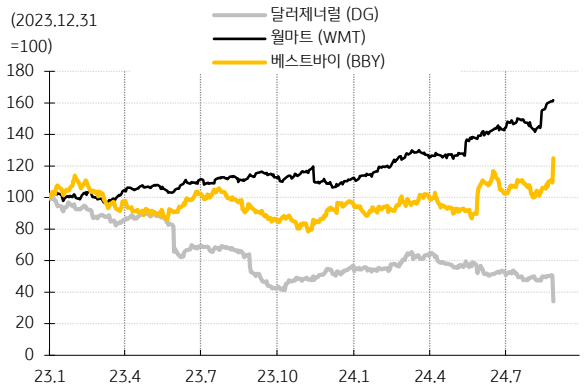
- 달러제너럴 (DG): 전일 32.2% 하락. 5~7월 분기 매출액과 EPS 모두 컨센서스 하회. 동일매장매출액은 전년 대비 0.5% 증가했는데 시장 컨센서스 (+2.1%)에 미치지 못함. 소모품 항목이 늘었고 가정용품, 의류, 계절용품 항목은 감소. 동일매장매출액의 평균 판매 금액이 전년 대비 하락했는데, 가격인하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트래픽)이 시장 기대만큼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회사는 가격인하와 같은 통제 가능한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핵심 고객인 저소득층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매출액 성장세가 둔화됐다고 밝힘. 내년 1월에 끝나는 회계연도의 동일매장매출액 증가율 가이던스를 기존의 2.0~2.7%에서 1.0~1.6%로 하향 조정. 이는 시장 컨센서스 2.5%보다 낮은 수준
- 베스트바이 (BBY): 전일 14.1% 상승. 5~7월 분기 매출액과 EPS 모두 컨센서스 상회. 동일매장매출액은 전년 대비 2.3% 감소했지만 컨센서스 (-3.2%)에 비해 선방. 미국 내 동일매장매출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컴퓨팅/모바일폰이 전년 대비 3.9% 증가하면서 가전제품, 게임 부문의 부진을 상쇄.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노트북 매출액이 예상에 부합했다고 밝힘. 아직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교체 수요 확대 등 AI가 고객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초기 단계에 있다고 평가. 5~7월 분기 실적 호조에는 유료 멤버십 프로그램 등의 고마진 서비스 수요 확대, 영업 비용 절감을 통한 마진 개선도 영향을 미쳤음. 회사는 내년 1월에 끝나는 회계연도의 동일매장매출액 성장률 가이던스 상단을 소폭 낮췄지만, EPS 가이던스는 상향 조정. 대선과 휴가 시즌 영향으로 고객들의 소비 여건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하반기에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할 리스크 요인들이 많다고 언급. 하지만 AI가 향후 몇 년 동안 여러 카테고리의 매출액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중기 전망을 유지

그림 1. 주요 고객층 다른 유통주, 엇갈린 실적



자료: Factset, KB증권

그림 2. 달러제너럴 하락 vs. 베스트바이 상승



자료: Factset, KB증권

그림 3. S&P 100 편입종목 중 전일 성과 상위

	종목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달러)	업종	수익률		
					1D	1W	3M
1	PYPL	페이팔 홀딩스	75	금융	3.9	7.7	19.8
2	INTC	인텔	86	IT	2.7	-3.5	-33.2
3	COP	코노코필립스	133	에너지	2.0	2.9	-0.8
4	MA	마스터카드	441	금융	1.9	2.5	8.7
5	V	비자	458	금융	1.9	2.6	2.0
6	ADBE	어도비	253	IT	1.6	2.9	19.3
7	TXN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193	IT	1.6	5.3	8.3
8	SCHW	찰스 슈왑	115	금융	1.5	-0.9	-7.9
9	AAPL	애플	3,494	IT	1.5	1.7	20.8
10	XOM	엑슨 모빌	525	에너지	1.4	-0.0	4.0

자료: Factset, KB증권

그림 4. S&P 100 편입종목 중 전일 성과 하위

	종목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달러)	업종	수익률		
					1D	1W	3M
1	NVDA	엔비디아	2,893	IT	-6.4	-5.6	2.4
2	TGT	타겟	71	필수소비	-2.2	6.5	3.8
3	HD	홈디포	365	경기소비	-1.5	1.4	12.6
4	QCOM	퀄컴	189	IT	-1.4	-1.6	-18.6
5	SPG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54	부동산	-1.3	5.6	12.5
6	CHTR	차터 커뮤니케이션	50	커뮤니케이션	-1.2	-0.5	29.5
7	CMCSA	컴캐스트	152	커뮤니케이션	-1.2	-0.4	4.0
8	PEP	펩시코	236	필수소비	-1.1	-0.3	0.5
9	LLY	일라이 릴리	894	헬스케어	-0.9	2.0	15.9
10	LOW	로우스 컴퍼니	141	경기소비	-0.9	2.3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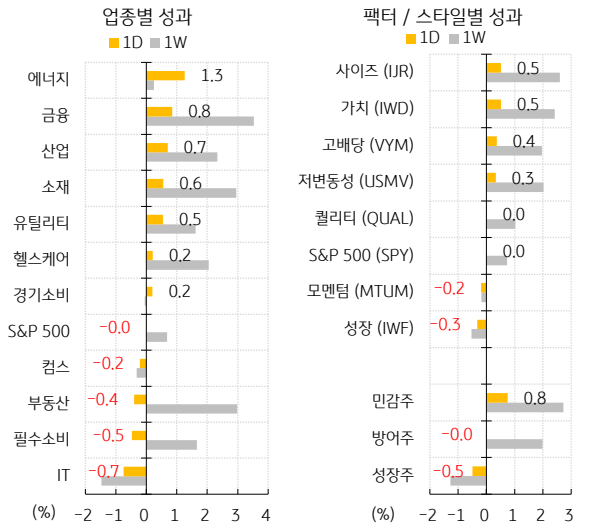
자료: Factset, KB증권

그림 5. S&P 100 시가총액 상위 20위 성과

	종목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달러)	업종	수익률		
					1D	1W	3M
1	AAPL	애플	3,494	IT	1.5	1.7	20.8
2	MSFT	마이크로소프트	3,071	IT	0.6	-1.3	-3.7
3	NVDA	엔비디아	2,893	IT	-6.4	-5.6	2.4
4	AMZN	아마존닷컴	1,806	경기소비	0.8	-2.8	-5.4
5	META	메타 플랫폼스	1,132	커뮤니케이션	0.3	-1.7	9.2
6	GOOGL	알파벳A	948	커뮤니케이션	-0.7	-0.7	-8.0
7	GOOG	알파벳C	913	커뮤니케이션	-0.7	-0.8	-7.9
8	LLY	일라이 릴리	894	헬스케어	-0.9	2.0	15.9
9	AVGO	브로드컴	730	IT	-0.8	-5.3	12.8
10	TSLA	테슬라	659	경기소비	0.3	-4.6	17.1
11	JPM	제이피모간체이스	632	금융	0.4	3.9	12.2
12	BRK.B	버크셔 해서웨이	621	금융	0.8	5.4	15.9
13	WMT	월마트	615	필수소비	0.4	4.0	17.7
14	UNH	유나이티드헬스 그룹	546	헬스케어	0.5	2.4	22.0
15	XOM	엑슨 모빌	525	에너지	1.4	-0.0	4.0
16	V	비자	458	금융	1.9	2.6	2.0
17	MA	마스터카드	441	금융	1.9	2.5	8.7
18	PG	프록터 & 갬블	400	필수소비	0.6	1.3	5.2
19	JNJ	존슨앤드존슨	395	헬스케어	0.2	3.0	13.7
20	COST	코스트코 홀세일	393	필수소비	-0.2	1.8	9.9

자료: Factset, KB증권

그림 6. S&P 500 업종 / 팩터 / 스타일별 성과



자료: Factset, KB증권

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